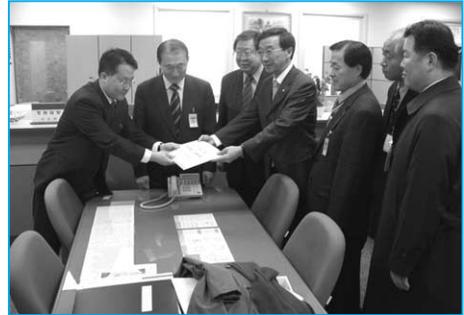


본회소식

● 수의직공무원 처우개선 및 임용확대에 관한 청원서 제출

지난해 12월 8일(목) 오전 국회 본청 민원실에서 한나라당 이인기의원(행정자치위원회 간사)과 우리회 정영채회장, 김옥경수석부회장, 상래홍 서울특별시지부장, 허주형 인천광역시지부장, 서울대 수의대 양일석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의직공무원 처우개선 및 임용확대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청원서는 각 시도지부장 및 지난 12월 2일(금) 개최된 “수의사수급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서명한 회원 등 정영채회장의 279명의 청원인으로 구성되었고, 한나라당 이인기의원, 정종복의원, 광성문의원, 임인배의원, 최경환의원, 김석준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서명하였다.

이 청원서에는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손실과 국민보건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가방역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의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임용을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접수된 청원서는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12월 12일자로 회부되었다.

- 아 래 -

〈청원서 내용 요약〉

1. 수의사의 최초 임용직급 상향(현 9급부터 임용하는 것을 의료인력 수준으로 향상)
2. 수의직공무원의 수의사수당 상향(현 의사수당의 1/10수준인 것을 의무직 공무원수준으로 향상)
3. 검역 및 방역축산위생 등 수의관련 업무 부처 신설(국제적으로 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최소한 중앙부처에 국단위 이상의 조직신설필요)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임용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우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 직렬 분류체계를 개편하고자 12월 7일 입법예고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입법예고(안)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수의직의 업무가 수의사면허자에 한하여 가능한 점 등 업무의 전문성을 인식하지 못한바, 현행 “농업,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직렬”을 “농림축산직렬”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입법예고(안) 확정시 수의직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위생, 가축방역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회에서는 현재 수의사면허자를 임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과 타 직렬과의 업무차별성 등을

골자로 수의직렬의 현행 유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농림부에서도 수의직렬 현행 유지의 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 식약청, “항생제내성 안전관리 전략과 전망”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및 “제3차 국가항생제내성 안전관리 사업 비전보고 대회” 개최

식약청(청장 : 김정숙)에서는 지난 12월 13일(화)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항생제내성 안전관리 전략과 전망”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각 관련기관 및 의료보건계와 수의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Dr. Patrick McDermott(US FDA CVM :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Dr. Robert Leo Skov(Statens Serum Institut, Denmark), 서울대 수의과대학 박용호교수, 가톨릭의과대학 유진홍교수, 식약청 권기성팀장 등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한편, 김정숙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한 항생제의 사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계 뿐만아닌 각 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12월 14일(수)에는 식약청 대강당에서 “제3차 국가항생제내성 안전관리사업 비전보고대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행사는 식약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각 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항생제 사용 및 내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축산용 항생제의 내성관리에 대하여 발표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석찬과장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순박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윤희박사, 연세대학교 이경원교수, 성균관대학교 송재훈교수, 질병관리본부 이영선팀장, 질병관리본부 이복권팀장, 전남대학교 신동현교수, 고신대학교 정석훈교수, 국립수산물과학원 이태식팀장, 식약청 권기성팀장, 동국대학교 이광근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이연희교수 등이 주제발표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갑수 동물약품과장, 정석찬 세균과장, 서울대 수의대 이문한교수, 박용호교수, 경상대 수의대 정태성교수, 충남대 수의대 윤효인교수, 우리회 우연철기획실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배일도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6일(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배일도의원(한나라당 /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최로 감염성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우리회, 환경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성폐기물의 관리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주최인 배일도의원이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명확한 감염성여부에 근거하지 않고 병의원 및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명칭을 “감염성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료폐기물”로 명칭변경하고 실제 위해도 및 감염성의 여부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처리방법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표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원보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도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개정하고 위해성여부에 따라 “일반 의료폐기물”과 “위해 의료폐기물”로 대분류하고 “위해의료폐기물”을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에서는 일반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의 차이점 등을 들어 일부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우리회 우연철기획실장은 “명확한 명칭사용을 위해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관리를 개선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물병원의 경우 일반 병의원과 달리 진료대상 동물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차이점 등을 고려할 것과 추후에도 해당법률의 개정시에 이러한 수의계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우리회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서울특별시지부, 2005년도 제4차 수의사연수교육 실시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 상래홍)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3층 스킵드홀에서 제4차 임상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전부터 눈이 내려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0명가량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상래홍 회장의 지부업무에 대한 소개와 캣츠앤드독스 동물병원 이미경 원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10시부터 시작된 상래홍 회장의 지부업무 소개는 서울시수의사회와 서울수의약품(주), 대한수의사회, 한수약품(주)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수의사회가

왜 회원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 등 이었다. 또 회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나 서울시수의사회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캣츠앤드독스 동물병원 이미경 원장은 ‘고양이 신장 질환의 진단과 치료’ 라는 제목으로 강의 하였고 제2강의 에서는 ‘고양이 간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 **경기도지부, 2005년 제4차 수의사연수교육 실시**

경기도수의사회(회장 : 백충기)에서 지난해 12월 11일(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수의과학회관 5층 강당에서 2005년 제4차 수의사연수교육을 개최 되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현창백교수(강원대학교 내과학)가 심장질환의 새로운 치료기법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동물 침술에 대해 김희영박사(서울대외과학 & 경희대 동서의학 대학원 침구경락학)가 강의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05년의 경기도지부 마지막 연수교육으로 360여명의 회원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 **경기도지부, 2005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경기도수의사회(회장 : 백충기)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금) 오후 6시 경기도수의사회의 임원진과 고문, 자문위원, 각 시·군수의사회 집행부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대한수의사회 정영채회장, 강호 사무총장, 우연철 기획실장과 한국동물병원협의회 강종일 회장, 신다영 총무이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전해민 재무팀장 등 많은 외부인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특히 이날 행사에는 19인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함께 가지며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수의사회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경상북도지부, 2005년 제3차 수의사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교육 실시**

경상북도수의사회(회장 : 권춘수)에서는 지난해 12월 9일(금) 오전 10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농업인회관에서 경상북도수의사회 제3차 수의사연수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으로는 1)경상북도청 보건위생과 김윤수 과장의 「마약류관리교육」과 2)세무회계사무소 양수 석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3)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변명대 교수의 「우군에 있어서 불임 증의 발생상황」의 세미나를 가졌다.

● 대구광역시지부, 독립법인화 및 수의사연수교육(마약류취급자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수의사회(회장 : 배경호)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화)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 5층에서 배경호 회장, 윤병준 명예회장, 정홍범 의원, 이철순 경수약품(주)사장 등이 회원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의사연수교육 및 연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배경호 회장의 인사말씀과 윤병준 명예회장 축사, 정홍범 의원의 격려사에 이어, 3명의 우수회원(박순석, 이귀현, 남우우) 표창과 명예회장(윤병준) 표창이 있었다. 이날 교육으로는 대구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안문영 과장의 「마약류관리교육의 세미나」를 가졌다.



한편, 대구광역시수의사회는 지난 2005년 11월 17일 대구시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아, 대구지방법원에 등기 완료되어 2005년 12월 13일부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제2차 항생제 사용 절감 연구모임 회의 개최



지난해 12월 16일(금) 농림부에서는 3/4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문한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및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약품 유통현황과 항균제 절감대책”에 대하여 (사)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김영석고문, “세계각국의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실태와 절감대책”에 대하여 글로벌네트웍 이인호이사, “수산용 항생제의 사용실태와 절감방안”에 대하여 경상대 수의과대학 정태성교수, “무 항생제 축산을 위한 HJ 바이오다이나믹 축산 기술”에 대하여 (사)친환경농업포럼에서 발표하고, 발표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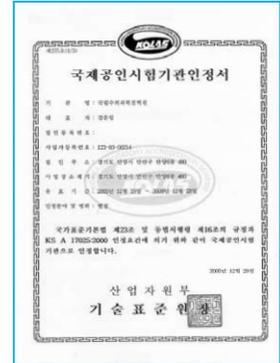


제3차 연구모임의 회의는 '06년 2월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회에서는 '06년 5월로 예정된 제4차 연구모임에서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강문일)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KOLAS)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임을 증명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를 획득하였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본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은 국제적으로 자격을 갖춘 인정기구가 규정된 절차(ISO/IEC 17025)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의 규정에 의거 국제적으로 승인된 시험소 인정기구인 기술표준원(KOLAS)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의 동물용의약품, 다이옥신, 중금속, 농약 분석 분야와 축산물규격과의 미생물, 이화학, 방사능 분석 분야이다.

ISO/IEC 17025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장비, 업무규정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이미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등 선진국의 국가시험기관들은 ISO/IEC 17025 인정을 받았거나 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그간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기 위하여 2004년에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으로 2년동안 추진하였으며 ISO/IEC 17025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국의 Central Science Laboratory(CSL)가 주관하는 국제비교속련도시험(Proficiency test) 등을 실시하여 매우 우수한 성적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축산물의 잔류물질 및 성분규격 시험에 있어서 국제수준(ISO/IEC 17025)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축산물 안전성 시험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아시아지역 국제 표준 실험실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절기 돼지호흡기질병 발생주의보” 발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강문일)은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여 양돈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호흡기질병이 '05/ '06년 동절기에도 발생·확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호흡기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양돈농가의 철저한 사양 및 방역관리를 당부하는 “동절기 돼지호흡기질병 발생주의보”를 '05년 12월 17일자로 발령하였다.

돼지호흡기질병은 포유자돈에서 비육돈 출하 시까지 전 성장단계에 걸쳐 발생하며 갑작스런 폐사보다는 만성소모성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사료효율저하, 증체율감소, 출하일령지연 및 질병발생에 따른 약품비와 인건비 추가 투입 등으로 양돈장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질병으로 연중 발생하지만 동절기에 추위로 인한 생체기능의 저하와 돈사 내 난방으로 인한 환기불량 등으로 돼지의 저항

력이 감소되었을 때 발생률이 높으므로 양돈농가에서는 동절기 폭설 및 강추위 등에 대비하여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환기개선 등 예방차원의 사양 및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돈사 내 적절한 온·습도 유지 및 환기, 올인·올 아웃 등을 철저히 하고, 환축이 발생하면 가까운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나 수의과학검역원 및 병성감정지정기관(수의과대학, 민간연구소)에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과 수의전문가의 방역지도를 받을 것을 당부 하였다.

(※ “동절기 돼지호흡기질병 발생주의보”의 전문은 본지 ‘홍보자료’ 참고)

학회소식

● 2005년 한국수의병리학회 및 제2회 아시아수의병리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아시아수의병리학회 및 한국수의병리학회(회장 : 김순복)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양일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9개 회원국 20여명의 외국인 수의병리학자와 농림부, 검역원, 전국 수의과대학, 시·도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병성감정기관, 가축방역지원본부 등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아시아수의병리학회 및 2005년 한국수의병리학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하였다.

아시아수의병리학회는 질병 발생현장에서 가금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최일선에서 직접 수행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한국 등 총 9개국의 병리전문가인 수의병리학자들 간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 정보교류와 진단기술 및 연구결과 공유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2003년 일본에서 첫 창립된 이후 이번이 2회째로써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지만, 향후 아시아권 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동향 및 정보수집과 진단기술 교류의 장으로써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금번 제2회 아시아수의병리학회는 한국수의병리학회와 합동으로 개최되어, 그 동안 아시아국에서 발생된 각종 질병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과 정보교류 및 진단기술 공유와 병리학적 병성기전 등에 대한 많은 정보교류가 있었다.

금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초청연사인 사카모토(Sakamoto) 박사(일본 국립동물위생연구소)의 “최근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발생상황 및 연구동향” 특강을 비롯하여 70여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아시아수의병리학회 총무인 검역원 문운경연구관은 “본 학술대회를 통해서 각국의 방역담당관들과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최근의 이러한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아시아지역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권역별 교류에 의한 회원국 상호간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서 질병으로 인한 공황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을 다지는데 아시아권에서의 질병 모니터링 컨소시움을 형성한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평가하였다.

● **한국임상수의학회, 임원 및 주소변경 안내**

한국임상수의학회(회장 : 정병현)는 2005년 정기총회를 통해 학회임원진이 개편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사무실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 **주소변경내용**

- 주소 : (우)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내 한국임상수의학회
- 연락처 : 02-450-3670(상임이사/정순욱교수), 02-450-3717(회장/정병현교수)
- 전송 : 02-465-4655
- 이메일 : swjeong@konkuk.ac.kr(정순욱교수)
- 홈페이지 : www.ksvc.or.kr

■ **신임 임원진**

- 회장 : 정병현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 상임이사 : 정순욱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 편집위원장 : 최석화교수(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 학술위원장 : 박희명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 총무간사 : 박종임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 **박정환회원, “보드미동물병원” 한글학회주최 아름다운 우리말 일터이름 선정**

“보드미동물병원”(원장 : 박정환)이 한글학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일터 이름’ 으로 선정됐다.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운동의 하나로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로 오염된 거리간판을 바로잡기 위해 선정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6곳의 일터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2005년의 다섯번째로 선정된 ‘보드미동물병원’의 ‘보드미’는 ‘보듬다’의 명사형으로 귀엽고 가녀린 동물 친구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보듬어 인간과 동물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자 지은 이름이다.

박정환회원은 “보드미동물병원은 ‘보듬다’는 뜻처럼 아픈 동물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아 정성껏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늘 친근함과 포근함으로 동물 친구들을 보듬어 살피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안내

● 수의한방료법 발간

장칠봉 재미회원은 ‘수의한방료법’을 발간하였다. 2년전 ‘수의침구학’을 저술한 장칠봉회원은 최근 한국수의임상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의한의치료를 위한 참고서 ‘수의한방료법’을 저술 발간하였다.

지난해 개최된 제2회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기념호로 제작된 이 책은 한약성능과 응용, 본초, 방제, 수의한방 임상에 관한 4편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의학의 근본원론인 음양오행 및 팔강변증법에 의거하여 소화기 장애를 비롯한 여러분야의 소동물질환을 침, 한방약제로 치료할 수 있는 예를 소개하고, 한의이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한방약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치료에 요긴한 소동물의 침혈을 같이 소개하고 있다.

- ▶ 발행처 : 서울특별시수의사회
- ▶ 연락처 : (02) 953-4050
- ▶ 저 자 : 장칠봉 수의사(재미수의사)
- ▶ 저자 이메일 : changko3@aol.com



기타소식

● 한국야생동물 유전자원은행, “2006 보전생물학의 세계적 동향” 워크샵 개최

서울대학교 BK21농생명공학사업단(단장 : 김수일)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 김재규), 한국야생동물 유전자원은행(은행장 : 이 항)에서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2006 보전생물학의 세계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의 보전생물학, 유전학, 의학 및 집단생태학 분야의 연구자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및 보전생물학 연구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되고 있다.

- 아 래 -

1. 주제 : 2006 보전생물학의 세계적 동향
(Current Trends of Conservation Biology: the Science Fighting Against Extinctions)
2. 일시 : 2006년 1월 16일 ~ 18일 (09:00 - 18:00)
3. 장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4층 스킵빌드홀 (16일), 3층 제 1 강의실 (17, 18일)
4. 프로그램 : 별첨 안내장 참조
5. 주최 : 서울대학교BK21 농생명공학사업단, 국립공원관리공단
6. 주관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7. 후원 : 환경부
8. 등록 : 16일 공개 심포지움은 관심 가진 모든 분들에게 개방되고 등록이 필요 없으나 17-18일 워크숍은 사전 등록한 분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음, 등록비는 없으나 보전생물학 분야의 연구자나 유사 분야의 연구자들을 우선적으로 하여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 할 예정임(약 30명)

※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참조



● (주)네슬레퓨리나펫케어코리아, 한국네슬레주식회사에 합병

2006년 1월 2일자로 아래와 같이 (주)네슬레퓨리나펫케어코리아가 동일한 주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네슬레주식회사로 흡수 합병되었다.

- 아 래 -

	변경전	변경후
상 호	(주)네슬레퓨리나펫케어코리아	한국 네슬레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220-81-71205	315-81-03757



● 입법예고

1.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5-132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검역시행장 지정,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 및 검역물 관리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검역시행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5-131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처리상태에 따라 검역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입법예고(안)과 개정(안)의 전문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이나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법제처 홈페이지 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